



[뉴스] 내년 반도체 산업 희망은 있다 02



Economy

코스피	2096.86 (0.00)	코스닥	695.76 (0.00)
금리 (무기계 3년)	1.90 (+0.01)	환율 (원-달러)	1121.20 (+2.00) (11.30)

# 금리인상, 소비·투자 타격 우려... 韓경제 '빨간불'

##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 (1) 성장률 하락 우려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 내수위축, 성장 둔화 가능성 주요기관 내년 성장률 낮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금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도 빨간불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내년 통화정책은 동결에 그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동력은 약해졌다

◆ 경제성장률 발목 잡나... 경기하강 우려 고개

지난 10월 기준 생산·소비·투자가 '청신호'를 쳤지만 한은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경제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가계대출과 기업 자금조달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가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이하 동일)는 전월 대비

(98.8)도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2009년 4월(98.5) 이후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한은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하향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8%, 내년 2.6%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2.8%, 내년 2.6%를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에

이 내년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는 세계경기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의 성장추진력 약화와 설비투자 및 인구감소 등이 내년 경제성장을 둔화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에 타격이 된다"면서 "특히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건설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유동성마저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추가 인상 여지 남겼지만...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

한은은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며 "한번 금리를 인

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 묶여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금융위에서 조동철, 신인석 금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내에서도 인상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도 "이 총재가 간담회에서 한미 금리 차를 언급하며 내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시장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5G시대 열렸다... 이통3사, 세계 첫 전파 송출

# 1호 고객은 명화공업·AI 로봇·LS엠트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기업에 먼저 서비스 제공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세계 첫 5세대(5G) 상용 전파 송출로 '5G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미래 국가를 이끌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5G는 초광대역, 초저지연, 초연결이 특징이다. 롱텀에볼루션(LTE)의 한계를 극복해 음성통화, 인터넷뿐 아니라 자동차, 드론, 원격의료,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의 융합산업을 아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오전 경기 분당에 위치한 SK텔레콤 인프라관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통신구 화재 사고에서 보듯 5G 기반 초연결 시대에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도 5G 출발을 기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SK텔레콤은 CDMA 디지털 이동전화부터 LTE까지 모바일 신세계를 이끌어 온 ICT리



1일 0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들이 5G 전파 송출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코퍼레이트센터장, 강종렬 ICT인프라센터장, 문창수 지엔에스기술 대표, 이현용 SKT 매니저, 박정호 사장, 서성원 MNO사업부장, 이경운 명화공업 이사, 권순택 대교대리점 대표, 박진호 SKT ICT기술원장. /SKT

더로서 소명감을 갖고 5G가 불러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구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5G 전파는 서울, 경기도 성남·안산·화성·시흥, 6대 광역시, 제주도 서귀포시, 울릉도·독도 등 13개 시·군 주요 지역에 제공된다.

5G 첫 통화는 분당에 있는 박정호 사장과 '세계 5G 1번지' 서울 명동에 위치한 SK텔레콤 박석희 매니저 간에 이뤄졌다. 통화에는 삼성전자 5G스마트폰 시제품이 활용됐다. 이어 SK텔레콤은 분당 네트워크 관리센터-부산 해운대·대전 둔산동·광주 금남로 간 5G 통화에 차례로 성공했다.

KT는 1일 과천 네트워크관리센터에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G 상용 전파 첫 송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KT는 1일 자정(0시)을 기점으로 3.5GHz의 100MHz 대역 5G 전파 송출을 통해 5G 상용망을 개통했다.

또 전국 주요 24개시를 비롯하여 고속도로, 지하철, KTX 등 주요 이동경로와 초기 트래픽 집중이 예상되는 대학교와 주변 상권에 우선적으로 5G 네트워크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1일 자정 서울 마곡 사옥에서 세계 최초 5G 전파

송출 행사에 참석해 첫 5G 전파 발사 점등식, 깃발 꽂기 세레머니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현희 부회장이 직접 시연에 나섰다. 대전기술원에서 서울 마곡 사옥에 5G망을 이용한 '화상통화'를 걸어 5G 영상 데이터를 서울 마곡 사옥에 전송, 서로의 화면을 연결했다. 5G 기지국이 현재 4100여 곳으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역을 구축한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5G 기지국 7000개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5G 서비스는 기업 고객에게 먼저 제공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 韓 중장년 실업률도 美 추월

2분기 중장년 실업률 2.9%  
美 2.7% 보다 0.2%p 높아

때문에 미국을 넘어선 한국의 실업률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들어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최근 계속된 고용난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p 상승한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 2.7%보다 0.2%p 높은 수치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2012년 미국보다 3~4%p 낮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미국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 등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실업률은 경기 상황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3.0%였던 반면, 미국은 0.3%p 하락하면서 우리보다 0.1%p 낮은 2.9%에 머물렀다.

청년층에 이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해 있다.

지난해 1분기에 이미 미국을 추월한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7분기째 고공행진을 하며 격차를 키우고 있다.

중장년층 실업률 악화는 경기부진 영향으로 수년째 계속되는 고용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20만~30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8만명으로 떨어졌는데 이어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지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